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특별한 하루를 허락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과 하나님과 성경앞에 즐겁고 귀한 시간을 보내는 하루입니다.

성실하게 준비한 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공과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이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고

우리아이들이 진정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선생님이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오후에 있는 학부모 교제도 주님께서 함께해주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본문 요한복음 13장입니다.

1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길지만 1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Antes de la fiesta de la pascua, sabiendo Jesús que su hora había llegado para que pasase de este mundo al Padre, como había amado a los suyos que estaban en el mundo, los amó hasta el fin.

2.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2 Y cuando cenaban, como el diablo ya había puesto en el corazón de Judas Iscariote, hijo de Simón, que le entregase,

3.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3 sabiendo Jesús que el Padre le había dado todas las cosas en las manos, y que había salido de Dios, y a Dios iba,

4.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4 se levantó de la cena, y se quitó su manto, y tomando una toalla, se la ciñó.

5.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5 Luego puso agua en un lebrillo, y comenzó a lavar los pies de los discípulos, y a enjugarlos con la toalla con que estaba ceñido.

6.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6 Entonces vino a Simón Pedro; y Pedro le dijo: Señor, ¿tú me lavas los pies?

7.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네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7 Respondió Jesús y le dijo: Lo que yo hago, tú no lo comprendes ahora; mas lo entenderás después.

8.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8 Pedro le dijo: No me lavarás los pies jamás. Jesús le respondió: Si no te lavare, no tendrás parte conmigo.

9.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 뿐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9 Le dijo Simón Pedro: Señor, no sólo mis pies, sino también las manos y la cabeza.

10.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10 Jesús le dijo: El que está lavado, no necesita sino lavarse los pies, pues está todo limpio; y vosotros limpios estáis, aunque no todos

12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2 Así que, después que les hubo lavado los pies, tomó su manto, volvió a la mesa, y les dijo: ¿Sabéis lo que os he hecho?

13.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3 Vosotros me llamáis Maestro, y Señor; y decís bien, porque lo soy.

14.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14 Pues si yo, el Señor y el Maestro, he lavado vuestros pies, vosotros también debéis lavaros los pies los unos a los otros.

15.내가 너희에게 행한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본을 보였노라
15 Porque ejemplo os he dado, para que como yo os he hecho, vosotros también hagáis

16.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16 De cierto, de cierto os digo: El siervo no es mayor que su señor, ni el enviado es mayor que el que le envió.

17.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7 Si sabéis estas cosas, bienaventurados seréis si las hiciereis

긴 본문을 다 읽었습니다. 일단 머릿돌 초등학교 1,2학년 머릿돌 본문에 보면

이날 이 사건을 아주 쉽고 핵심적으로 잘 묘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그대로 읽어드릴테니까 잘 들어 보세요

1,2학년 머릿돌 본문입니다.

유월절 전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으실 때가 된 것을 아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꺼야

무슨 소리 가장 많은 일을 한 사람은 나라고 높은 자리는 내꺼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한명씩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주님 발을 씻겨주는 것은 종이나 하는 일이잖아요 주님께서는 제 발을 씻겨주실수 없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너를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후에 다시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1,2 학년 머릿돌, 3,4학년 머릿돌, 5,6학년 머릿돌 중에 가장 쉽고 핵심이 잘 들어나게 정리한

부분이 바로 이 1,2학년 머릿돌 본문 이 부분이더라구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1,2학년 머릿돌에 좋은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어느 곳을 씻어주셨나요?

되게 쉬운질문인데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1번 손 2번 얼굴 3번 발

어떤 사람이 주저할 수 있는 단계를 설명해 주죠

뭐 손이야 기꺼이 얼굴도 이쁘면, 그러나 발은 얼굴 예쁘고 한 것과 상관 없이

발하면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일단 좀 꺼릴 수 있는 곳인데

하필 그곳을 씻겨 주신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상상의 머릿돌에 나와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1. 더러운 발로 다니면 집안이 더러워지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2. 예수님께서는 종이시기 때문에
3.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4. 제자들이 목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질문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5,6학년 머릿돌에 오타, 잘못나온 것이 있는데 5,6학년 머릿돌

본문 다음에 나오는 오늘의 코너에 보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녁을 먹기전에 발을 씻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멋기전에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나요?

잘못된 질문입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나요

이게 아니라 저녁을 먹는 중에 저녁을 먹는 중에

누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나요?

제자가 제자를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래서 저녁을 먹는 중 이렇게 5,6학년 선생님들은 수정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쇼

현대판으로 넘어와서 비슷한 장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현재의 나는 내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혹은 어떤분은 나는 이번주에

출산 예정이에요 그리고 어떤분은 나는 오늘 분반을 마지막으로 이제 교사로써의 마지막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찹찹하고 서글프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무엇보다

오늘 이 아이들과의 이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과의 이별이 마음에 걸립니다.

나도 당장 내일이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인데 이 아이들과의 시간이 오늘이 마지막이다 보니까

아이들을 보고있으면 마음이 짠하고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오늘 분반 끝나고 오늘은 롯데리아에서 점심을 먹자

이제 아이들이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롯데리아에 갔습니다.

갔는데 분반아이들이 선생님의 찹찹한 기분은 아랑곳 하지 않고 서로 맛있는거 시키겠다고 난리에요

뭐 어떤아이는 이게 더 맛있다 저게 더 맛있다 난 저것도 먹어봤다. 난 더블로 먹을 거다

넌 왜 나보다 비싼 것 시키려고 하냐? 그러다가 어떤 아이는 자기가 먹어본 것을 자랑하기도 하고

더 맛있는걸 시키려고 막 언쟁을 하는 모습을 보게됩니다.

그 때 분반선생님으로써 자기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다 한 아이가 결정타를 날립니다. 선생님 소프트콘 시켜도 되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아이스크림도 먹어도 되요? 하고 물어본거에요

그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저라면 다시 교회 식당가자 안되겠다 너희들

이렇게 될 수 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내 마음이 어땠을까?

아이들이 너무 예쁘고 사랑스럽기만하다

2번 그렇지 않다. 아마 우리같으면 그렇지 않을 겁니다.

너희들 내 마음, 그리고 내가 이야기 했는데 내 마음을 내 말도 못알아 듣고

내 마음도 몰라주고 자기들 먹을 궁리만 맛있는 먹을 궁리만 하는 아이들이 어리긴 하지만

그래도 야속하고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이러셨을 꺼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끝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전 여기서 눈에 확들어오는 단어가 자기의 사람들 자기 사람들

예수님이라면 왜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을까?

자기 사람들이기에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제자들을 두 고 이런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내게 주신 사람들 내게 주신 자들 내게 주신 이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 한 사람 한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귀한 자라는 것을 표현을 하셨던 겁니다.

13장인데 17장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17장 6절입니다.

17장 6절 보시면

6.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He manifestado tu nombre a los hombres que del mundo me diste; tuyos eran, y me los diste, y han guardado tu palabra.

제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셨으며 이렇게 되어있죠

그리고 9절 보십쇼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Yo ruego por ellos; no ruego por el mundo, sino por los que me diste; porque tuyos son,

내게 주신 자들 이들은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분반아이들은

세상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내 분반아이들은 하나님의 영혼들인데 내게 붙여준 영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분반

아이들을 조건없이 사랑하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를 애쓰고 돌아보고 기도하는 이유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인데 이 내게 주신 자들이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저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것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것 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말하는거죠

임금님의 소유로 된 것들은 참 귀합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의 소유로 된 것들을

함부로 대할 수 는 없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의 귀한 영혼들을 내게 맡겨주셨는데

내 임의로 할 수 있을까? 내 기분 흘러가는데로 그 아이들을 대하고 맞이할 수 있을까?

그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착각이다. 이것이 내 소유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의 영혼들이라면 나는 여하튼 청지기구나 그래서 주인의 뜻에 맞게 잘 돌보고

잘 맡아서 맡겨주신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 일을 맡은 것이

우리 교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요 잠깐 맡긴겁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잠깐 맡겼습니다. 잠깐 우리가 맡았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앞에서

교사로 한번 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존되기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11절 보시면요

11절 뒷부분입니다. 저희를 보존하사 이렇게 되어있죠 저희를 보존하사

12절에도 나와있습니다. 저희를 보존하와

그리고 15절도 보십쇼 15절 끝부분 보존하시기를 그리고 17절 보십시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중요한 21절 보십시오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para que todos sean uno; como tú, oh Padre, en mí, y yo en ti, que también ellos sean uno en nosotros; para que el mundo crea que tú me enviaste.

21절의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하사

예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이 본문의 이날 사건에서는

제자들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다툼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심히 근심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나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예수님은 다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가만히 계실 수 가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가 되기를 바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불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마음판에 확실히 세겨주시기 위해 발을 씻겨주시는

친히 본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서 특별 분반수업을 하신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많은 분반아이들을 데리고 있었던 분은 예수님입니다.

12분 12명의 분반아이들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시죠?

예수님은 아주 다양한 성격의 제자들을 분반 학생으로 일년이 아니라 3년반을

분반수업을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봅니다.

다시 요한복음 13장 보시면요

이 본문의 중심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입니다.

이 본문 묵상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소인 장소와 시간도 알 수 있습니다.

장소와 시간

이날 사건의 장소가 누가복음 22장 12절에 나와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장소가 어딘지 아는 것은 묵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12절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0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10 Él les dijo: He aquí, al entrar en la ciudad os saldrá al encuentro un hombre que lleva un cántaro de agua; seguidle hasta la casa donde entrare,

11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뇨 하시더라 하라
11 y decid al padre de familia de esa casa: El Maestro te dice: ¿Dónde está el aposento donde he de comer la pascua con mis discípulos?

12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12 Entonces él os mostrará un gran aposento alto ya dispuesto; preparad allí.

이날 이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의 장소는 유월절 준비를 위해 빌린

어느 다락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저녁입니다.

특별히 유월절 하루 전날인데 이날은 양을 잡는 날입니다.

양을 잡는날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 큰 객실 큰 다락방에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이

함께 저녁식사가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장면이 전환된다면

막 웅성웅성 하는거에요 같이 식사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여느날과 다름이 없는 평범한 저녁식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이땅에서의 자기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수님은 유대종교가들에게 잡혀가서 결국은

심판, 종교재판도 받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밖혀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이 식사 자리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은

무척 무겁고 마음이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많이 아프셨을꺼에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 상태와는 전혀 다르게 제자들은 뭔가에 막 흥분해 있었어요

그리고 흥분된 속에서 서로 다투고 있었는데 24절 한번 보십쇼

22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4절 보시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Hubo también entre ellos una disputa sobre quién de ellos sería el mayor.

저희 사이에 다툼이 난지라 그리고 그 내용이 누가 크냐

그러니까 누가 크냐로 다투었다는 것은 넌 안커 너도 안커 내가 너보다 커

반듯이 서로를 헐뜯고 깎아내리고 잘못을 지적하거나 들추어서

너는 아니야 너도 아니야 너보다 내가 나아 내가 더 적합한 사람이야

굳이 누가 큰 자냐 따지냐면 너보다는 내가 커

넌 이러이러해서 아니야 넌 이러이러해서 아니야

이 다툼속에는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고 잘못을 지적하고 깎아내리려고하는

이런 추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일 분반아이들 사이에서 이런일이 비슷하게 일어난다면

누가 더 잘났냐 누가더 잘했냐 뭐 이런걸로 다툼이 일어난다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화를 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따끔하게 혼낼것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저녁만찬 분반시간에 제자들에게 다툼의 화두가 되었던

큰 사람에 대하여 일단은 말씀으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27절 보십시오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Porque, ¿cuál es mayor, el que se sienta a la mesa, o el que sirve? ¿No es el que se sienta a la mesa? Mas yo estoy entre vosotros como el que sirve.

크냐로 다투니까 뭐가 진짜 큰지 누가 진짜 큰자인지를 먼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겁니다.

섬김 받는자가 큰자 인 것 같지만 실상은 섬기는 자가 더 큰자라고 명확하

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실제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런거다 하시면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행동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즉 이날 예수님의 분반수업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겸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후에 본으로 가르쳐주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전 과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다 가깝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 분반을 가르쳤을 때에는

참는거에요 마음을 넓게 해서 그 한사람 한사람에 대한 여러 가지

모난 부분이나 여러 가지 마음에 들지않는 그런 부분들도 다 받아주면서

전과정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개개인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까 개개인을 넘어서서

마지막으로는 전체적으로 분반학생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아껴줄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개개인의 발을 씻어주셨을때에는 뭔가 개개인과 접촉되면서 발을 발만 어루만져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마음도 만져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 씻기고 난 이후에 이제 앉아서 전체를 두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끼리 서로 씻기는 것이 옳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분반학생들끼리 서로 배려하고 아껴줄 것을 당부하신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나와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이 말씀

이건 진정 사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제자들 사이에서 왜 큰자 이 큰자라는 것이 화두가 되어서 다툼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비롯됐습니다.

마태복음 21장 보십시오

왜 갑자기 큰자 큰자가 이렇게 쟁점이 됐을까? 마태복음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이 큰자와 관련된 다툼은 여기서 비롯됩니다.

이 마태복음 21장 이 부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1장 9절을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Y la gente que iba delante y la que iba detrás aclamaba, diciendo: !!Hosanna al Hijo de David! !!Bendito el que viene en el nombre del Señor! !!Hosanna en las alturas!

호산나 다윗으 이름이야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하더라

여기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특별히 이 호산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나이다 만세 이런거에요

제자들이요 와 이렇게 열열히 예수님을 환영하는 인파를 본겁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열열히 환영하시는 모습을 보고

이야 진짜다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시나보다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실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생각이 된거에요

예수님이 왕이되시면? 그러면 나는 ? 나는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임금되시면 누가 큰자리에 제일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눈빛이 벌써 왔다갔다 하는거에요 제?

그러다보니까 내가되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생각으로 간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마음에는 예수님이 임금되시면

누가 제일 높은자리에 앉을것인지 여기에 이렇게 몰입이 된거에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어머니를 동원하서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자기들을 좌우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

그런것도 어머니를 통해서 부탁도 합니다.

그러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러한 전 광경속에서 이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제자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에 대한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방향으로의 생각들이

이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귀를 막게 해서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큰자? 큰자? 이걸로 진짜 왕옆에서 한 자리를 하고 싶은 이런쪽으로 자꾸 생각이 옮겨져 간겁니다.

예수님께서 되게 슬프셨겠죠 게다가 옆에서 가롯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준비를 하고있었으니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을 딱 놓고 선을 딱 그은다음에

한쪽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초조함을 그려보고요

한쪽에는 어리석은 권력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의 실랑이 하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그려보면

너무나 대조적이고 너무나 대조적이어서 너무나 슬픈 장면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들이 다투기 전에 미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으로 돌아가서요 누가복음 22장 21절입니다.

22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21.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21. Mas he aquí, la mano del que me entrega está conmigo en la mesa
22.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A la verdad el Hijo del Hombre va, según lo que está determinado; pero !!ay de aquel hombre por quien es entregado!

예수님은 자신의 운명을 이야기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이 악하게 쓰임받는

제자 하나를 두고 너무 안탁가워 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에요

지금 되게 심각한 이야기 하셨는데 아 그래요? 하면서 계속 다투고 있는거에요

니가크냐 내가 크냐?

그만큼 연약했다는거죠? 제자들은 그리고 이런 연약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극진한 사랑으로

끝까지 대하셨다라는 겁니다.

13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되 끝까지 중간에 이런저런 우여곡절이나 불만케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해도

한결같이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가롯유다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하나의 주님의 사랑을 교훈받습니다.

가롯유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사람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으로

등장하는 이 가롯유다도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받았는데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안탁가운 사랑일 수 받게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자기를 돈받고 팔아넘길 유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걸 보면

이야 어떻게 그럴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분반 아이들 중 하나가 여러분을 사기친다고

생각해보십쇼 내가 다 알고있어 벌써 오늘 분반부터 눈초리가 틀릴꺼에요

열외시킬겁니다. 넌 나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날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거겠죠

그럴수 있을까.... 예 그러실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한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2장에 본것처럼

이날 다락방은 빌린집이었어요

어떤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유월절 준비를 위해서 빌린 집이었습니다.

빌린 집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락방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해주는 사람은 없었죠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객실로 들어갔으니까 누가 초대한게 아니잖아요

누가 초대한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락방에 딱 들어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는 중에 식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고는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고 난 후 에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일을 하신겁니다.

그니까 빌린 집이었다. 그래서 누가 초대한 집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갔을 때 맞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을 발씻어줄 사람이 없었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집을 빌리러 간 사람도 제자들이잖아요

집도봐뒀고 싸이즈도 봐뒀고 이렇게 저렇게 자리배치도 바뒀고 그러면

누가 큰자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자리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아니라

아 오늘 주님과 함께 어기서 지낸다 이제 주님 곧 오실텐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면요 나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주님이

여기 들어오실텐데 라는 것에 초점이 맞아져 있었더라면

빌린집이라 할지라도 12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발을 씻겨줄 준비를 맞지 않았겠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종이 상전에게 해야할 마땅한 일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예수님의 발을 씻겨주지 않은 상태에서 만찬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다락방 안에서의 최초의 발씻음은 종이 상전에게 했던 것이 아니라.

상전이 종에게 하는 모습으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 이들은 어느 누구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 속에

대야에 물을 떠서 예수님 발을 씻겨드려야 할 텐데 생각들은 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고 습관화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씻겨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 자꾸 짖누르는 그것을 치워버리는 마음이 있었으니

나는 너희들보다 높은데 내가 오늘 해야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네 차례야

야 너 뭐하고 있냐? 너도 당연히, 야 너 안해?

다른 사람이 해야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너희들 보다 높은데 당연히 너희들이 그 일을 해야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서로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누구도 행동으로 나서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이런 생각들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다 전제할 때 그것을 예수님이 아셨을거

아니에요? 더 마음이 안탁가웠을꺼에요

발씻는거 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내가 크니까 네가 해라

굉장히 안탁가워 하시고 슬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고만 있을수는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들의 스승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의 주 이셨기 때문에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가르쳐주실 수 받게 없었습니다.

모르는 것은 알도록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주는 이런것들을 최선을 다해

가르치셔야 했던 스승이자 주 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만찬이 진행되는 중에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잡수시다가 일어나셨다. 그리고 무얼 하셨냐? 겉옷을 벗으셨다고 되어있어요

당시의 겉옷은 권위를 상징합니다. 겉옷을 벗으셨다.

권위를 상징하는 겉옷을 벗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후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주께서 종이되시는 모습

그 장면을 보고 있는거에요

겉옷벗고 권위를 뒤로하고 물떠오고 떠다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물 떠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완전 종이죠? 종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니까

그리고 앉으셨어요 더 자세히는 무릎을 꿇고 앉으신 겁니다.

더러운 발 앞에 종앞에 그리고 큰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제자들 에게 오히려

자신을 낮추시고 오히려 상대방을 섬기는 자가 진정으로 큰 자라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데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자

제자들은 아무말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제자는 발 내놓으라고 하니까 무심코 발을 내밉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차례대로 씻겨주시고 씻겨주시

고 닦아주시고

신기한 거는요 베드로의 차례가 오기까지는 이 특별한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틀림없이 특별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차례가 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상황에 이이 재기나 특별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와있지는 않지만 저는 끊임없이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베드로가 몇 번째였을까?

12중에 몇 번째 였을 까?

아마 첫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제자는 발 내놓으라 했을 때

되게 놀랐을 꺼에요 하여튼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았겠죠?

두 번째 제자는 좀 당황스러워했을 겁니다.

그런데 점차 순번이 뒤로 갈수록 제자들은 이 상황에 익숙해져갔다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상황이요 되게 특별한 상황이

몇단계 지나니까 마져 다음 니 차례야 그다음 내 차례네 자기 차례를 기다리면서

당연히 예수님은 내 발을 씻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보는겁니다.

정말 주께서 내 더러운 발아래 엎드려서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는 것이

진짜 당연합니까?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우리는 교제를 참석하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변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린 교제나 모임에 가서 내가 발씻음을 받지 못했다 생각하면 확 짜증을 냅니다.

오늘 교제가서 나 마음 씻음 받고 싶었는데 그냥 뭐뭐뭐뭐

그리고 어떤 분은 그냥 이렇게 내가 오늘 상담을 했는데

문제가 속시원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불쾌해 합니다.

아니 상담하면 반드시 그 상담에서 문제가 속 시원히 해결되는 것이

아주아주 당연합니까? 더 괴로워 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주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교제가 자기에게 만족이 되지 못하면 괜히 불평을 합니다.

교제 상담 모임 이 모든 것들은 항상 나에게 이러이러한 절대적인 유익을 줘야한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생각으로 우리 마음이 갑니다.

이날 제자들도 내 더러운 발은 오늘 예수님에 의해서 반드시 깨끗해져야한다

안그러면 나 예수님 미워할 거야 이렇게 이상하게 변해갈수 있다는 겁니다.

한명의 제자부터 열둘의 제자까지 지나가는데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당연해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기쁜마음으로 교제에 왔을 때 그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제가 오늘 교제 가운데 들은 말씀 10분의 1이라도 이해못합니다.

말씀 가운데 졸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비록 그렇게 오늘 교제의 시간을 보냈지만

저는 오늘 교제에 왔다가는 것으로 너무 기뻐요 이랬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교제가운데서 뭔가 특별한 유익을 얻지 못하면

괜히 이렇게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이날 예수님이 열두명의 제제들 발을 다 씻겨줬으니 다행이지 한명 빠트려봐요

금새 이상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발씻음과 씻김 받는 만족이 당연해야 된다는 마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올라올수 있다면

나라는 사람은 이날 열두명의 제자들의 모습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한 상황이 늘 나에게 당연하게 펼쳐줘야한다는 당연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그 지나친 생각들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된거에요 몇 명이 지나갔는지 모르지만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는데 베드로는 이 때 심한 찔림을 받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내 교만과 욕심 때문에 주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을 회피했구나

어찌 주님이 제 앞에서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씻김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 마음은 더럽습니다 제 마음은 악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안됩니다. 씻지 마십시오 그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셨던 겁니다.

이 베드로가 주님과 밀접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주님과 아주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마음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 꼭 맡는 적절한 화답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즉 베드로야 난 너를 씻겨야 한단다 그래야 너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단다

상관이 있게 된단다 밀접해 지게된단다

내가 예수님께 씻김 받아야 예수님과 여원히 함께 밀접함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베드로가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황급히 말을 건넵니다.

주여 내 발 뿐만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어 처음엔 발씻김을 완강히 거부하던 베드로가 아 그러면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쇼

왜? 주님과 밀접해 질 수만 있다면

늘 그것이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씻김받아야 주님과 밀접해 질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이제 아예 온몸 씻겨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밀접해지고 싶은거에요

이 베드로가 비록 다혈질 적이다 이야기 하고 때로는 실수도 왕왕 하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베드로의 마음을 보게 되면

진심으로 주님을 가까이 하고자 했던 사람인데 무엇보다 예수님 명령이면

목을 걸고 목숨을 내어놓고 절대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고치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베드로의 주님을 향한 신앙은 누구보다 뜨겁고 순수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씻김을 받으면 많이 상관있는줄 알아라 하는거죠

참 예쁜생각이죠 많이 씻김받으면 많이 상관있는줄 알고

주님과 더 밀접해지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도 이것도 씻겨주십쇼

그런데 이렇게 순진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10절처럼 이야기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Jesús le dijo: El que está lavado, no necesita sino lavarse los pies, pues está todo limpio; y vosotros limpios estáis, aunque no todos

해서 발씻는 이 상황에서 목욕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욕 이미 목욕한 자는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래서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거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깨끗케 된 사람 이 영혼이 죄 씻음 받고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야 너 이미 목욕한 자나 넌 이미 온몸이 깨끗하다

너는 발 받게 씻을 필요가 넌 발만 씻으면 된다 너 발은 꼭 씻어야 된다

즉 목욕이 구원받는 일을 가르킨다면 발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

생활속에서 하나님 앞에 범하는 그 그릇된 행동과 죄들 이것들을 날마다

씻김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욕은 한번인데 발씻음은 여러번 그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에
생활속에서 이렇게 나름 이렇게 부담스럽고 충격적인 죄를 지을 때

나 어떻하지? 막 고민할게 아니라 내가 목욕한 자가 오늘 발에 큰 오물을 묻혔다.

그럼 어떻게 해야되지? 아 내가 씻김을 받아야 되는구나 발을 씻김 받아야 되는구나

교제와 교제 안에서 날마다 말씀으로 씻김 받는 겁니다.

왜냐면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깨끗해지지 않으면 주님과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줄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말씀처럼 주님과 밀접하게 될 수가 없어요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밀접해질려면 주님과 늘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면 발씻음을 받는 일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언제 가장 불쌍합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살 때 되게 불쌍하죠? 보면 되게 잘살아요 그런데 되게 불쌍해

의식주가 잘사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과 그렇게 밀접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 안부럽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안탁가운 마음과 불쌍한 마음이 생깁니다.

저분도 구원을 받았다면 주님과 밀접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일 텐데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우리눈에는 가장 불쌍하게 보입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리스도인이 왜 가장 불쌍하냐? 상관없이 산다는거 자체가

주님과 멀어져서 동떨어져서 왜면하면서 등지면서 사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피해다니면서 그러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밀접하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살맛이 안나는 거죠

사는데 제대로 맛있게 사는 것처럼 안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틀림없이 불쌍한 거에요

더러운 사람은 더러운 사람과 사귑니다.

깨끗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과 사귑니다.

더러운사람이 깨긋한 사람과 같이 교제할 수 있느냐? 없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모임에 갑니다. 주님의 거룩한 모임 거룩한 교제에 가는데

깨끗한 곳에 갑니다. 그러자면 내가 일상에서 주님앞에 어떤 더러운 것을 행한 것이 있다면

내가 거룩한 교제 가운데 가서 같이 사귈려면 더러운 것을 씻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잘못생각하는 것이 있죠 씻고 갈께요

씻고 갈께요가 아니라 여기 이 제자들처럼 와서 씻는겁니다.

이렇게 그 말씀하신 분이 있잖아요 제가 이 죄좀 해결한 다음에 갈께요

어디서 그걸 해결한다는 이야기죠?

어디서 그걸 해결할까? 정말 잘 해결할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하게 하결할 수 있는 곳은 교제입니다.

교제에 와서 자기가 씻는 것이 아니라 씻김을 받아서 깨끗해 지는 것을 해야되는 겁니다

말씀과 교제 그 안에서 사랑과 용서로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사람과 교제를 하려면 같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교제가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래야 기도도 막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래야 주님일 할 때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가 있죠

뭐 말씀을 못먹어서 힘이 없을 때도 있지만 뭍혀진 죄들, 뭍여온 죄들 때문에

힘이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것들을 날마다 교제와

말씀속에서 계속 씻어주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은 힘이 생깁니다.

깨끗한 사람은 힘이 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날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었는데 물두멍에 손과발을 씻는 일이였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성소에 못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가면 죽거든요 안씩고 들어가면

신약시대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매일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서 손과발을 씻는 모습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전에 손과발을 씻는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에 언제나 말씀과 교제안에서 우리의 죄를 발씻음을 받는

그 일을 교훈하기도 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놔두면 안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죄는

하루라는 시간은 계속지나가잖아요? 신앙생활은 계속 이렇게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계속 놔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섬겨야 되는데 섬겨야 되는데 이 죄는 어떻하지 이 죄는 어떻하지?

앞에 물두멍이 있는데, 가서 담그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씻김을 받으면 되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일상의 죄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말씀과 교제를 찾아가서 듣는 중에 읽는 중에

은혜받는 중에 이렇게 감사한 마음과 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얼룩지고 더러운 마음 씻겨주시고 마음에 새로 샘솟는 마음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교제와 말씀가운데 있다보면 깨끗해 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이 힘이 될 겁니다. 그래서 힘있게 살아가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기신 다음에 다시 앉으셨잖아요?

다시 앉으시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그것이 곧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발을 씻겼으니

너희되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면서 그 행하신 일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일러주셨습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들이 서로 다투는 것은

옳지 않으니라 너희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고 헐 뜯는 것은

어울리지 않단다 왜? 너희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지 않냐?

주님의 제자, 주님의 하나된 제자 너희들이 하나되기를 바라는 나의 간절한 마음이 있고

너희들이 늘 너희들이 보존되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하나인데 지금 이렇게 분열되고 있지 않냐? 다투고 있지 않냐?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물론 너희들 개개인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꺼냐?

너희가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서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줘야 정말 하나님의 뜻가운데 하나가 될수

있단다 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서 사랑이 드러나고 사랑하는 가운데서

큰 힘이 나올 수 있지 않냐? 너희들 장차 어떻게 될 사람들인데

너희들 이제 복음들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된다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학년이든 팀이든 혹은 초등부 전체이든 우린 이 안에서 서로의 허물을 봅니다.

그리고 서로의 모난 부분들을 생각을 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중에 다툼이 있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그걸 보고계시고 알고계신다는 것도 생각 하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결국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뭐냐?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서로 옳으니라 내가 너라면

발을 씻겼겠다 그래서 본을 보이셨잖아요

발을 씻기셨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너희를 가르치는자고

너희는 내게 배우는 자인데 나처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씻겼다 너희들도

서로 막 이러지 만 이러지 말고 서로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가 왜 서로 발을 씻겨주어야 합니까?

우린 안에서 받는 이 교회와 교제 안에서 받는 어려움 보다는 세상에서

받는 어려움이 훨씬 큽니다. 신앙 한다고 막 뭐라고 그러죠

전도한다고 막 뭐라하고 합니다. 교제간다고 뭐라고 그러고

맨 봉사 때문에 교회당 들락날락 거린다고 막 뭐라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

소외당하는 경우도 많고 무시당하는 경우도 많고 뒤에서는 손가락질도 합니다.

심지어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발은 아름답지만 많이 부릇터있어요

그리고 상처를 입고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때로는 힘겨운 싸움에 지쳐서 죄가 많이 묻어있기도 합니다.

난 교제 온다고 했는데 교제 못가게 막 말리는 사람과 티격태격 할 수도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는 전쟁터에서 상처입은 군인들일지도 모릅니다.

죄가 좋아서가 아니라 내가 힘에 붙여서 죄를 못이겨서 죄가 묻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발은 아름다우나 상태는 굉장히 상처많고

많이 부릇터 있다는 겁니다. 세상사람들은 그걸 보고 고소하다 그럴 꺼에요

거봐 너 봐 그렇잖아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될까?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아름다운 발을 다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이 부르튼 발이 이 먼지 묻은 발이 이 상처난 발이 어디서 따뜻하게 위로받을수 있고

치료받을수 있을까? 우리들 속에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의 원인과 이유와 모든 치료방법들은 우리만 알아요

밖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만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사가 격는 어려움은 교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기도 모자란 시간에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비난할 수도 있고 조롱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중에 우리안에 있고 바로 우리가 그 주인공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형제자매들의 약점이 보입니다 예 보이죠 눈을 뜨고 있는 이상 보입니다.

그런데 그 보일때가 무서운거에요 자꾸 형제자매들의 약점이 약점으로 보인다

약점이 보이는건 어쩔수가 없죠? 그런데 그 약점을 진짜 약점으로 자꾸 생각하는거에요

그게 이제 자기가 높아지면 그렇습니다. 높아지면

그런데 자기가 낮아져있으면 약점이 보일 때 그게 약점으로 다루어지지가 않아요

내가 매워주고 싶어하고 내가 이렇게 그것을 가리워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지

약점이야 약점이야 약점이야

이럴 때 틀림없이 자기가 높아져 있는 상태라는 진단을 하셔야 합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자기에게 밀려올 때 두려워 하셔야 되요

내가 병들어가고 있구나 어떠한 형제자매님의 연약한 부분이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자꾸 기도가 되 그럼 감사하게도 주님의 겸손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점과 연약함을 이렇게 헤아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주님의 감사함과

기쁜 마음이 올라와요

주님 이런 마음 갖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는 제가 그 상대방의 허물과 연약함을 비난하기 일수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이런 마음 갖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되게 기쁘잖아요

우리가 남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 하고 비난할 때 그 때 쾌감이라는 것을 느껴요

죄를 지면 쾌감이라는게, 죄는 맛있잖아요, 남을 이렇게 다루고

저렇게 다루는 것은 은근히 그 자리에서 맛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양심이 있는이상

집에가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요 내가 그러며 안되는데

그런 것 같은 내가 오늘 괜한 생각을 하고 괜한 말을 한 것같은 불편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비결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씻기워 줘야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다보니까

내가 씻어줄려고 내가 씻어줘야되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감싸주고 보듬어줘야 되는거구나

그런데 생각보다 그런생각할 때

내가 교제 가운데서 상당히 많이 씻김 받아 왔었다는 것을 알게되요

씻어주고 싶을 때 씻김 받아왔다는 것을 안다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씻어주고 싶은 마음이 안생기면 내가 언제 씻김받았는데 나는 내가 알아서 했어

이렇게 되는 그 마음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혼자있으면 절대 안깨끗해져요

제일 두려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혼자만의 시간

그렇죠? 그래서 청년때는 어떻게든 집에 안있으려고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교회당 나오고

해야 혼자 있으면 깨끗해 지는게 거의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혼자 있는데 혼자가 아니거든요 마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 내가 깨끗하게 살아가고 싶다 그러면 더더욱 교제안에 있으려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알게모르게 많이 씻기지고 깨끗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가서 진정으로 나를 씻겨주시는 분은 형제 자매님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제 모인 우리 각자의 손을 빌려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보듬어주는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힘들어 하고 죄로 고생하고 마음에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씻어주시고

보듬어 주는 거에요 우리에게 필요한게 있다면
누군가 교제 가운데서 씻김받고 싶어서 발을 내밀 때 그 발을 보고 흉보거나

판단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나름 자기가 꽤 괜찮게 살고있다라는 착각을 하게되면

교제 가운데 와서 막 자기 힘든 이야기 하고 허물있는 이야기 하게되면

그 상태로 교제왔냐고 이런 경우도 있는겁니다.

그러니까 교제 왔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밀 때 흉보거나 판단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옳다고 하셨으면 해야되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한 이 자리에서 조차도

서로 높아지려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정리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을 통해서 자기들만 돌아보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끄럽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낮아지는 일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셨어요

혹 누군가를 판단하고 싶습니까? 하되 먼저 낮아지고 해보싶쇼 먼저낮아지고

그러면 쉽게 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먼저 낮아지는 마음을 가져봤더니 그 다음에 할려고 했더니 이런 마음이 드는겁니다

그래서 먼저 낮아지는 비결로 허물진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는 것 보다. 발

씻는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모습이 되어볼 것을 요구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이 교훈을 가르침을

완벽하게 깨닫지는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진정 깨달은 그날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날에는

살면서 평생 이날의 교훈을 잊지 않고 살았을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자가 되고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라고 야고보서 1장에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알고도 행치 못하는 내 자신을 보게 됩니다. 나 아는데

아는데 잘 안될 때 마음이 어떻죠? 저는 개인적으로 괴롭습니다.

제가 막 미워요 아는데 안되니까 아는데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되게 비참해져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보게 됩니다.

그 때 아는데 잘 안된다 왜 그럴까? 내가 진짜 연약하구나